

용서하고 자유하라 (요한복음 8:1-11)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이 간음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해주는 장면이다. 이 말씀으로 용서하고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물론 그 사람도 우리로부터 자유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믿고 난 뒤에 하는 가장 주된 일이 기도이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가 쉬우면서도 어렵다. 응답이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 자체도 우리 맘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또 지나간 일을 멀리 보면 우리 기도대로 다 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누구나 깊은 기도를 하고 싶고 24시 기도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부터 24시 하겠다면 되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기도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은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그런데 대부분 복음과 기도가 따로다.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다라고 생각한다. 아마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복음을 잘 알았다면 복음이 답이므로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답이다. 기도는 답이 아니라 답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심으로 발견해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복음과 관련이 없는 기도는 사실상 힘이 없다. 왜냐하면 복음이 기도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기도의 힘이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 한다. 그 기도 안에 복음이 있어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소리를 지른다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가 복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사단은 무너진다. 그래서 복음 없는 기도는 이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기도는 복음 안에서 되어져야 하고 복음을 위하여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복음이 기도의 언약이고 내용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복음이고 목표가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에는 많은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도 계속 깊어져야 하기 때문에, 완전은 없으므로 치유되어야 한다. 오직 응답이 목표가 된 기도는 반드시 실패한다. 그 답이 복음이므로, 기도를 통해서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계속 해서 흑암세력을 꺾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내지 말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저주에서 해방, 문제에서 응답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모든 현장에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이 언약 안에 있다. 이런 축복이 다시 확인되고 언약되기 바란다.

1. 용서하고 자유하라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셨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책잡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왔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용서해주라 하면 모세는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대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완전한 답을 주신 것이다. 죄 없는 자가 있는가? 그리고 이 간단한 말 한 마디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너희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것이다. 나 아니면 너희는 답이 없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숨어

있다. 예수님은 조그만 일에도 실수가 없으시다. 항상 근본적이고 완전한 답을 주신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일도 아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완전한 답을 주셨다. 용서하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자유하게 되어 있다. 당연히 내 용서를 받은 그도 자유하고 해방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먼저 자유와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용서하라는 메시지이다. 간음현장에서 어떤 여자가 잡혀왔는데 그 여자를 용서하고 자유롭게 한 해방시켜준 기록이다. 당시의 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도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갔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난다. 사람이 생각도 못한 일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라.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과부 앞에서 아들을 살렸다. 끝난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이렇다. 잘 생각해 보라. 흥해가 앞에 있다. 상관 없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용서이다. 용서가 사람을 살린다. 정죄가 살리는 것이 아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에 비하면 이 여자는 천지차이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사람을 수용해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그 사람들은 돌로 이 여자를 치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살릴 수 없다. 세상을 살리러 오신 주님이 정답을 주셨다. 용서하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도저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때는 절대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잘 안다. 종이였다. 그런데 주인 빌레몬이 그를 용서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오네시모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감독이 되었는데, 그가 사역하던 골로새교회에 장로로 평생 봉직하였다. 당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고 도둑질을 하였다. 당시의 풍속대로 하면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웃기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고기를 먹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종에게 주인이 팔 잘라서 주라고 하면 쥐야 하는 때였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도망갔는데, 그것을 용서해줬다. 사도바울이 물론 부탁했다. 그런데 빌레몬의 용서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종을 초대교회의 시대적 증인으로 만들었다. 세계복음화 하는 큰 증으로 만든 것이다. 내 생각에 빌레몬은 천국에서 상급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 진짜 수고했다고 칭찬하셨을 것이다. 오네시모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았을 수도 있다. 빌레몬은 용서를 넘어서 그 종이 섬기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요셉도 그랬다. 보디발과 그 아내가 많이 쪼았을 것이다.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평생 존경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다. 사람을 용서해야 사람을 살린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다. 너도 용서하라. 나처럼 너도 용서하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지만 그래도 용서하라. 주님이 주신 답이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말은 사람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다. 복음 안에 주신 최고의 은혜가 죄사함과 자유이다.

요한복음 8장 31-32절은 유명한 말씀이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 진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이다.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 8장 36절은 더 직접적이다.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영적인 자유와 함께 참된 자유를 그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진짜로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진짜로 발견이 되어지면 정말로 저주에서 해방을 내 마음으로부터 누릴 수 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모든 문제 끝이다. 진짜 누릴 수 있다. 나는 경제문제가 있는데, 나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 끝이라는 것이 아니다. 돈 없어도 그리스도 누리면 이제 경제로부터 끝이야 되어진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돈도 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답이다. 그리고 방법이고 순서이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근본적

으로 우리가 믿을 때 이 자유가 이미 약속되어서 들어왔다.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하고 누리야 한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완전한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언약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정복과 증인

죄사함을 누리고 주님의 자유를 누리면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정복과 그 다음에 증인이다. 주님의 자유롭게 하심은 절대적인 것이다. 아무도 막을수 없다. 그리고 누가 뭐라해도 절대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적으로 일어난 이 언약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냥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언약으로 잡으면 그 언약이 더 구체화 된다.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더더욱 구체화 된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 맘과 생각 속에서도 더 영적인 힘이 나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누림이 더 되어진다.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면 교회에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귀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이다. 내가 먼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언약으로 잡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 결국 세상 넘어서게 된다. 내 인생도 정복하고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이나면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이 끝이야 라는 증인 된다. 이 영적인 누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한 대표적인 예가 렘넌트 7명이다. 잘 생각해보라. 진짜인지. 렘넌트 7명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은 영적으로만 승리하고 육적으로는 어땠는지 생각해보라. 그 답이 나오면 이제 그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방법이다. 이것 아니면 어딘가에서든지 여하튼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하고 있으면 바보같은데 결국 승리하고 정복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고백해보면 처음에는 이것이 했는지 안했는지 느낌이 없다. 그리고 은혜도 안된다. 혹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은혜가 더 안되는 경험 없지 않는가?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조용하던 마음이 더 일어나고 더 편하지 않았던 경험이 없는가? 그래서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마음이 가라앉았던 그런 일들. 체험해본적 없는가? 그게 다 사단 역사이다. 기준이 내 자신이 되기 싫다. 내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해버리면 속은 것이다. 사단은 뒤에서 박수를 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답이 이것이라고 했으면 되든지 말든지 그것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면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안 잡고 뭐하는가? 생각해보라. 이것을 잡고 있으면 그것에 집중이 되는데 안잡고 뭐하는가 생각해보라. 어디를 돌아다닌다. 그래서 고백을 한번 해본다. 하두 하라니까. 은혜가 전혀 안된다. 이걸 한건지 안한건지 내 맘에는 더 은혜가 안되도 그래도 해야 한다. 어느 때부터 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느낌이나 감동이 달라진다.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때 치유 일어나고 각인이 더 깊어지고 더더욱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정상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은 영적 문제이다. 그러면 영적 전쟁으로 풀어야 한다. 흑암세력을 박살내야 하는데 그 답은 오직 그리스도 뿐이다. 그래서 이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평안이 오기 시작하면 차츰 더 들어가는 것이다. 이 느낌과 감동은 누림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하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하고 싶고 이것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인생 전체에 대한 확신이 오고 더 힘이 난다. 당연히 하나님이 결과를 주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더 승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복은 응답을 많이 받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 때 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답이 난 것이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이 난 것이다. 이 때, 정복 일어

나는 것이다. 답 나는 것과 정복은 동시에 일어난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개 뿐이다. 진짜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인가? 이것 하나 뿐이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걸 깊이 누리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 이 언약을 매일 고백하면 237 증인으로 만들어준다. 237가서 뭐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해야 하나? 완전한 답이라고 말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누리면 된다고, 고백하면 된다고, 진짜라고,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말하면 된다. 그것이 237운동이다. 치유운동은 어떻게 하나? 똑같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다른 데서 온 치유다. 한 개 뿐이다. 진짜 그리스도가 답인가? 정말로 이것으로 다 되는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이 그리스도로 살아서 이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명이다. 사명자는 다른 방법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두고 그것으로 살려고 할 것이다. 결심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사명자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것 말고는 세상에 가치있는 것 없다. 그냥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 가치있는 것은 이것 하나 뿐이다.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기에 다 넣어야 한다.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내가 다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더 이상 말을 안할 것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언약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들하고 나누라고. 함께 진짜 증인 되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 2장 3절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감추어진 것의 뚜껑을 여는 것이 누림이다. 신자가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기존 신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것이 잘 안되어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고 내게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잡고 언약에 도전하면 완전해결된다. 노력으로 해결하면 다음에 또 온다. 그리스도로 해결하면 완전해결이다. 오늘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말 못하고 그냥 갔다. 이 여자에게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이런 부분이 자꾸 분명해져간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당연히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잘 안되면 복음이 지식으로 끝나버린다. 대부분의 기존 신자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도 거의 정리 안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이 정리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알고만 있고 믿고만 있고 언약으로 안 잡았다면 아직도 거기에 안 간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게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에 말씀이 성취되고 땅에 붙어 있는 인생 된다. 안그러면 공중에 떠 있다. 이것이 안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되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거 할거 없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좌의 권세가 임한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는 여기에 있다. 다른데 있지 않다. 여기 말고 다른 시공간초월이 오면 그건 다른 응답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리고 이 힘으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것이다. 내가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용서할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풍부하면 얼마든지 용서할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다.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237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간에, 가장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바란다. 그리고 내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지나간 모든 것 용서하면 내게 먼저 자유를 주실 것이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그리스도를 미국, 남미, 렘넌트, 다민족을 통하여 237로 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발견되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